

이란에의 투자는 아직은 자유무역지대로

이란의 키시(Kish)에서 2002년 3월 8일에 열린 '자유무역 경제특구의 투자기회'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외국투자자들은 최근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국투자자들의 몇 가지 불만들을 요약한 것이다.

- 제도적으로는 높은 소득세율, 불명확한 정책들, 모호한 규정, 자주 바뀌는 불안정한 정책과 규정들이 주요 문제점이다.
- 사업면으로는 현지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조달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지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조달기일을 못 지켜 공정 전체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 또 건설공사는 모두 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보험가입에 시간이 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투자자는 자유무역지대에의 투자가 유리하다. 다만 통신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걸림돌이다.

한편 이란은 작년부터 전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유치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승인권력을 가진 국가수호평의회(Guardian Council)의 세 차례에 걸친 거부로 인해 당초의 법안보다 개방 폭이 크게 줄어든 수정안이 의회와 국가수호평의회간의 최종 중재기구인 국가조정평의회(State Expediency Council)에 3월 10일 상정되었다. 외국인투자유치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고 하여도 이는 관련 법규의 개선에 그치며,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